

독립영화의 진화 · 성숙의 징조 드러내

전주국제영화제 '한국경쟁' 본선 진출작 10편 선정

나와 봄날의 약속 등 10편 극영화 질적 수준 높아져
젊은이들의 박탈감 · 분노 입체적으로 드러낸 작품 많아
등장인물들의 내면의 세계를 침착하게 파고들어

제19회 전주국제영화제가 '한국경쟁' 본선 진출작을 공개했다. 전주국제영화제 사무처는 올해 '한국경쟁' 부문 출품작 수는 총 89편으로, 프로그래머들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10편의 극영화가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한국경쟁'

은 상영시간 40분 이상의 중편 혹은 장편 영화를 대상으로 한 메인 경쟁 섹션이다. 올해 '한국경쟁' 본선에는 '귀여운 여인' (이승엽), '나와 봄날의 약속' (백승빈), '낮선 자들의 땅' (오원재), '내가 사는 세상' (최창환), '메이트' (정대건), '보이지

않는 오렌지에 관한 시선' (이준필), '비행' (조성빈), '성혜의 나라' (정형석), '졸업' (허지예), '한강에게' (박근영) 등이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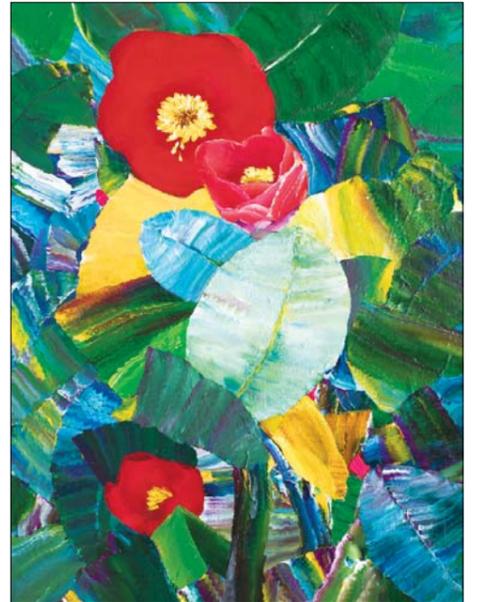
전주국제영화제 김영진 수석 프로그래머는 "올해 한국경쟁부문 출품작은 예년에 비해 극영화의 질적 수준이 높아진 반면 매년 전주영화제를 빛나게 해주었던 다큐멘터리 부문은 다소 정체된 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극영화 부문에는 젊은이들의 박탈감과 분노를 입체적으로 드러내는 작품들이 많았으며 한편으로는 인물들의 내면의 세계를 침착하게 파고드는 작품들도 적지 않아 독립영화의 진화와 성

숙의 징조를 드러냈다"고 심사평을 전했다.

이어 "올해 한국경쟁 부문에는 다큐멘터리가 한 편도 포함되지 않았으나 한국장편 초청 부문인 코리아 시네마스케이프에는 주목할 만한 다큐멘터리들이 포진해 있다"며 "세 편 이상의 작품을 연출한 감독들의 신작이나 독립영화의 범주 내에서 보다 다양하고 미시적인 접근을 시도한 극영화들도 코리아 시네마스케이프에 선정됐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선정된 10편의 '한국경쟁' 본선 진출작은 오는 5월 3일 개막하는 제19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본상을 두고 경합을 벌이게 된다. /정해은 기자



'빛, 동백꽃에 발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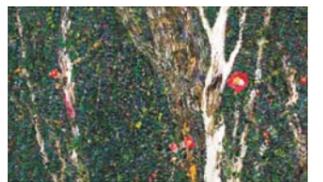
교동미술관서 강종열 개인전

동백을 즐겨 그리는 강종열 작가가 교동미술관에서 전시를 갖는다.

강 화백은 정물로서의 동백이 아닌, 빛의 산란을 섬세하게 표현하는 인상주의 기법으로 그려낸다. 동백 숲을 에워싼 공기와 빛의 흐름, 바람의 흔들림과 이동 경로, 그 속에 겹겹이 차 있는 무수한 색채와 질감을 포착한다.

이를 통해 그는 자신이 목도한 상투적이고 관습적 시선에서 벗어나, 숲을 마주하는 순간 생기가 되는 생경함을 그림에 담는다.

"동백 숲은 검고 촘촘해 다른 세계에 온 느낌"이라는 작가는 "그러한 숲은 생명과 빛이 산란



하는 듯한 느낌을 전할뿐 아니라 동백 잎들은 어둠 속에서 빛의 파장에 따라 수만 가지 색깔로 변하며 아름다움을 선사한다"고 말한다.

강 작가는 "동백은 한 잎 한 잎 떨어지는 여느 꽃과 달리 깨끗하게 통으로 뚝 떨어지며 진다"며 자신을 동백에 비유하기도 했다.

여수에서 활동 중인 강종열 화백은 2011년 국제박람회기구 BIE사무총장과 2014년 프란체스코 교황에게 작품을 직접 선물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이번 전시는 '2018 전라도 방문의 해'를 기념한 교동미술관의 기획초대전으로 오는 25일까지 만날 수 있다.

교동미술관 김완순 관장은 "실현적 작업을 시도하며 지역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보여주는 강종열 화백을 소개하고자 한다"며 "화폭에 펼쳐진 빛깔의 향연을 통해 작가의 40년 작품역사와 봄기운을 느끼길 바란다"고 했다. /정해은 기자



액트업파리 활동가들의 뜨거운 사랑과 격렬한 투쟁

-120BPM-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은 제70회 칸영화제 심사위원대상 수상한 로빈 캄필로 감독의 '120BPM'과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으로 관객의 호평을 받았던 김성호 감독의 신작 '엄마의 공책'을 3월 셋째 주작으로 상영한다.

영화 '120BPM'은 1989년 파리, 에이즈의 확산에도 무책임한 정부와 제약회사에 대항하는 액트업파리의 활동가들의 뜨거운

사랑과 격렬한 투쟁을 그린다. 칸영화제에서 심사위원대상뿐만 아니라 경쟁부문 국제영화비평가협회상, 퀴어종려상으로 3관왕을 거머쥐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실제 1990년대 액트업파리 활동을 했던 로빈 캄필로 감독은 칸영화제 심사위원대상을 수상할 당시 "에이즈로 먼저 눈 감은 사람들, 가혹한 대우를 받으면서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3월 셋째 주 상영작 공개

반찬가게 운영하는 엄마 인생의 숨겨진 비밀

-엄마의 공책-

싸웠고 또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대한 헌정 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수상 소감을 전했다.

김성호 감독의 신작 '엄마의 공책'은 30년 넘게 반찬가게를 운영한 엄마의 사연이 담긴 비법 공책을 발견한 아들이 유독 자신에게만 까칠할 수밖에 없었던 엄마 인생에 숨겨진 비밀을 알게 되는 이야기를 담았다.

웬메이드 가족영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을 연출하며 관객의 호평 받은 김성호 감독이 다시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마음 따뜻한 영화를 선보인다.

브라운관과 연극무대에서 활약하는 명품 배우 이주실이 손맛을 지닌 엄마 역을, 예능을 통해 큰 사랑을 받았던 이종혁이 철부지 아들을 연기한다. /정해은 기자

전북작가회의, 30일 최명희문학관서 월례문학토론회

전북작가회의는 30일 최명희문학관 비시동락실에서 월례문학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의 대상 작품은 장은영 동화작가의 책 '까는 소년', 한지선 소설가의 소설집 '여섯 달의 봄', 임미성 시인의 첫 동시집 '달려라 택배 트럭' 등 세 권이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는 박예분 동화작가, 정숙인 소설가, 문신 문학평론가가 각각 맡았다. 박예분 작가는 '선택, 그 이상의 쫓김'이란 주제로 두 소년의 엇갈린 선택과 갈등, 병혹한 현실 속에서 십 대들의 꿈과 욕기, 좌절과 성장, 인간의 삶이 담

긴 가치를 전한다.

'표류의 시간, 누구에게나 있는 그것과 그곳에서'란 주제로 발제에 나서는 정숙인 소설가는 드러나지 않는 삶의 용이들, 누군가에게 말 할 수 없는 아픔, 작은 상처를 안고 사는 영혼들에게 속삭이는 11편의 작품을 소개한다.

문신 평론가는 임미성 시인의 '달려라, 택배트럭'을 통해 경쟁하고 발달한 동심의 세계로 이끈다.

김종필 회장은 "이날 대신 펜과 종이로 겨울을 난 작가들의 노고를 우리는 보다 세심하게 친절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면서 "전북작가회의 회원들의 작품들이 모두에게 봄 꽃내음을 대신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정해은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